

(朝鮮語原文)

朝鮮時代 通信使 筆談唱和集의 出現과 變貌

具智賢

조선의 대일본 외교는 對馬島를 통한 羈縻外交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정기적이었던 중국사행과 달리 임시사절의 성격이 컸다. 江戸幕府 성립 후 일본으로의 사행은 형태상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607년, 1617년, 1622년 세 차례의 사행은 回答兼刷還使의 명칭으로 파견되었다. 통신사 명칭이 처음 사용된 1636년의 사행과 1643년, 1655년은 日光山 遊覽 혹은 致祭가 추가되었다. 사행원 員役이 정비된 1682년 사행부터 1711년, 1719년, 1747년, 1763년의 총 5차례에 걸친 사행은 정례화된 통신사행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1811년 사행은 對馬島에서 국서교환이 행해진 易地聘禮가 이루어졌다.

통신사행을 통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만남은 동아시아적인 전통방식과는 조금 달랐다. 언어가 다른 문사들이 시로 唱和한다는 점은 같으나, 주인격인 일본인이 먼저 시를 보내고 唱和시를 요청하는 것이어서 관례에 어긋나는 면이 있었다. 일본인들의 필요 때문에 唱和와 필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인과의 필담 및 唱和는 매우 성실하게 기록되어 편집되거나 출판되는 필담唱和집으로 남게 되었고, 필담唱和집의 출현과 변화는 일본의 한문담당층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幕府의 문서를 관장하는 林羅山과 몇몇 유학자들의 唱和시 및 단편적인 필담이 발견되기는 하나 필담唱和집의 형태는 1636년 통신사행 때 처음 출현하였다. 飯田藩主 脇坂安元の 家臣인 和田宗允의 『朝鮮人筆語』와 詩人 石川丈山の 『朝鮮筆談集』은 필담唱和집의 典範이 되었다.

일본의 문장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製述官이 파견되기 시작한 1682년 巨帙의 필담唱和집이 출현하였다. 『和韓唱酬集』은 京都丁子屋에서 沿路에서 이루어진 唱和시를 수집하여 출판한 것으로, 등장하는 일본 문사는 총 39인이다. 藩에 고용된 儒學者들의 증가로 인해, 필담唱和집의 상업적 출판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거질의 필담唱和집은 1711년에도 이루어졌다. 『鷄林唱和集』과 『七家唱和集』은 京都의 本屋인 奎文館에서 대대적으로 필담과 唱和시를 수집하여 출판한 것으로, 역대 필담唱和집 가운데 가장 대규모이다. 奎文館에서는 1719년에 『桑韓燠簾』를 출판하였고, 1748년에 『善隣風雅』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거질의 필담唱和집은 규모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개인 혹은 특정 그룹의 필담과 唱和를 편집하는 개별적인 필담唱和집이 늘어난다. 1748년은 唱和시보다는 필담이 위주가 되는 형태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의원들간의 필담이 늘어난다.

이러한 개별적인 필담창화집은 1763 년 사행에서 절정에 이른다. 유학자 뿐 아니라 의원, 승려, 관상가 등 한문으로 필담이 가능한 다양한 계층의 일본 문사가 등장하고, 대화의 주제 역시 다양해졌다. 일상적인 잡담에 가까운 내용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한문으로 필담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일본의 문사층이 두터워졌기 때문이다.

1811 년에는 일본문사들이 對馬島까지 와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한 달 이상 체류하면서 조선 문사들과 이전 사행에 비해 여유있게 만날 수 있었으므로,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하였다. 문사층은 다양하지 않으나 각 필담창화집의 내용은 풍부하다. 그러나 출간된 형태는 찾기 어렵다. 필담창화집에 대한 상업적 수요가 적어졌음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유학자는 江戸幕府 시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조선인과의 창화와 필담은 자신의 한문 실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에, 일본 유학자의 성장과 더불어 필담창화집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博物學과 本草學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醫員들 사이의 필담을 촉발하였다. 회를 거듭할수록 학술적인 교류의 형태가 강화되었고, 필담창화집은 이런 양국 문사들의 모습을 반영하였다.